法友

聞思修法會 월간신앙지

2011. 07 216호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

시절인연 | **자미득도 선도타!** | **진리로 피어나는 삶** 마왕의 은밀한 속삭임 | **삶 속에 피어나는 부처님 향기** 자연에서 배웁니다 • 딸의 원만한 결혼식을 치르며... • 가슴뛰는 삶을 살아라! • 아쇼카 산악회 • 제주도 여행일지(3) |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 **불자의 자녀교육** 안온하고 안온한 길 | **개원 17주년 기념법회** | **법회소식** 여름수련법회

문사수법회

연꽃잎에 물방울이 붙지않듯이
해와달이 허공중에 머물지않듯
모든번뇌 모든업과 마군의경계
세간살이 그속에서 해탈을얻고

어느때나 중생들을 믿고따라서
오는세상 모든겁이 다할때까지
보현보살 넓고큰행 항상닦아서
위가없는 보리도를 원만히하리

- 보현행원품

2011 문사수 경전학당 상반기 강좌

믿음의 세계

《신심명信心銘》으로 배우는 불교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그 위대한 믿음의 세계를 만난다.

◉ **강 사 :** 여여 법사 (문사수법회 대표법사)

◉ **장 소 :** 문사수법회 중앙법당 · 대전법당

◉ **기 간 :** **중앙법당** 2011년 3월 8일 ~ **7월 19일**(회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8시
대전법당 2011년 3월 11일 ~ **7월 22일**(회향)
• 매주 금요일 오후8시

◉ **동참비 :** 13만원 (교재비 별도)

※ 시공간적 제약으로 법당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통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되는 교재(MP3, 보충자료)를 통해 공부하고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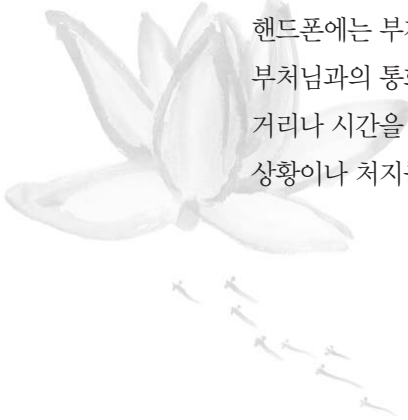
문의 문사수경전학당 교학처
전화 031)966-3581 | **팩스** 031)966-3584 | mssac@munsasu.org

時 · 節 · 因 · 緣

다만 참회(懺悔)하면서 지난 6개월, 반년을 돌아봅니다.

그때 그 일은?
그때 그 사람은?
그때 그 물건은?
더 귀 기울여 들을 걸.
더 자세히 바라볼 걸.
더 따뜻하게 보듬을 걸.
해서 세상에 가장 슬픈 말은,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이라는 넋두리입니다.

그렇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마다,
한 마디 한 마디 나누는 대화마다,
온 생명을 맡기고 살면 그만입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통화가 있지만,
부처님과의 통화는 즉각(卽刻)입니다.
거리나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치 않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부름과 동시에
부처님의 응답은 항상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는 어제에게, 내일은 내일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발심이 내일의 성취로 꽃필 것이니,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제의 게으름을 마주하며,
하고 싶은 일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마다,
갖고 싶은 물건마다
그 위를 우레와 같은 염불로 뒤덮고,
침묵과 같은 염불로 감싸면서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반년을 돌아봅니다.
다만 참회(懺悔)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여여如如 합장

C. O. N. T. E. N. T. S

www.munsasu.org

法友

216호 2011. 07

001 문사수 경전학당 안내

002 시절인연

005 불교란

006 자미득도 선도타! / 會主 한탑

012 마왕의 은밀한 속삭임 / 여여 법사

018 삶 속에 피어나는 부처님 향기
자연에서 배웁니다 / 등관법사
딸의 원만한 결혼식을 치르며... / 명덕 이종희
가슴뛰는 삶을 살아래! / 인향 노여진
아쇼카 산악회 / 길상화 민영희
제주도 여행일지(3) / 인공 맹문향

035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036 불자의 자녀교육 안온하고 안온한 길 / 성국 민병직

041 중앙법당 개원 17주년 기념법회

042 법회소식

046 정기구독안내

047 구독 · 후원 (법보시)

표지설명 | **환성사 불단 정면의 꽃나무 아래의 새 한 쌍**
표지작가 | **月智 유지연** 홍익대 동양화과 졸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중

월간법우_ 2011년 07월 216호 | **발행인**_ 김태영 | **편집고문**_ 곽인규 | **편집인**_ 김영애 | **편집위원**_ 정경환 조은영 김석순 | **편집 및 디자인**_ 도서출판 내조음 | **발행처**_ 문사수법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9-1 무원빌딩 8층
전화 (031)966-3581~2 http://www.munsasu.org

전법하는 염불인의 가방 속 필수품

'불교란?'

'불교란?' 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법회에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2010년 3월에 1쇄 1만부, 2010년 5월에 2쇄 1만부를 발행하여
군법당과 병원법당, 교도소, 복지시설 등에 활발히 보급하였습니다.

이제 뜨거운 후원과 격려에 힘입어, **3쇄 1만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료로 법보시하는 불사를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할 분들의 기쁨 가득한 동참을 기다리며, 인연 짓는 분들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 **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법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966-3581, 010-2387-6305
- **법보시 후원 동참 계좌** 하나은행 292-910001-7080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국민은행 161601-04-001600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법보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란'을 통한 인연 이야기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msspub@munsasu.org)

자미득도 선도타!

會主 **한탑**

오늘은 '하화중생'(下化衆生)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오니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나 하나 잘되겠습니다.' '나 하나 편안하고 싶습니다.' 등의 마음으로는 종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전부 다 항복받아야 하지 좇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자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등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입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를 따라가는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그 보살이 항상 하는 일이 바로 '하화중생' 입니다. 즉 모든 중생을 다 교화하는 겁니다.

이 '하화중생' 이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자미득도선도타(自未得度先度他)' 라는 한 문장입니다. '나는 아직 제도를 얻지 못했지만 남을 먼저 제도한다.' 는 뜻입니다.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하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해서 혼자만 제도를 받기를 바라는 공부는 '자미득도 선도타' 가 아닙니다. '자미득도 선도타' 의 마음은 나의 지혜가 밝아지거나 안 밝아지거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불교에 의지했더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안해졌다 또는 아니다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고 제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의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아직 제도를 얻지 못했지만 남들부터 다 제도해서, 남들 모두가 먼저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난파가 된다던지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구명보트 혹은 구명대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구명대가 물에 빠진 사람 숫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의지해서 살아 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살아 남게 되죠? 그럴 때에 '자미득도 선도타' '나는 비록 제도를 얻지 못해도 남들을 먼저 제도 하겠습니다' 라는 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구명대를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보살이지요.

자기는 구명대를 받아서 살수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구명대를 못 가진 사람들은 빠져 죽더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자미득도 선도타' 입니다. 나는 비록 건너지 못했지만, 나는 비록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들부터 먼저 안락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당된 그 구명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승보살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종교이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미득도 선도타' '나는 아직 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남을 먼저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중심적인 욕구 활동을 자연스럽게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구활동을 전개시키면서,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으니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으오리까?' 에서 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비록 제도를 못 얻었더라도 남들을 먼저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들을 먼저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남들은 살고 나는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나는 죽어도 그만이라는 뜻인가?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남들은 빠져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못살더라도 남을 먼저 살리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가능할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것이 가능하니까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명대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구명대를 양보하려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남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나는 빠져 죽더라도 남들에게 먼저 구명대를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을 방해하는 생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때 얼른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은 못 살더라도 나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존중해야할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항복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수보리존자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존자의 질문은 어떤 원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원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해주겠다.』는 원력이죠. 그것이 첫째 원입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나는 비록 완전한 해탈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남들부터 구원해 줄 이 구명대를 다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간혹 원력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당집에 가서 점치고 사주보면서 그런 걸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현상입니다.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네가 진실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 마음은 당연히 자미득도 선도타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제도를 얻지 못했어도 남부터 먼저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야말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을 일으킨 사람은 구체적인 일상에서 남들을 먼저 살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명대가 모자라는 경우에 '나는 비록 못 살더라도 당

신부터 살아야 합니다' 하고 구명대를 양보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뜨겁게 그리고 크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만 먼저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남들은 잘못 되더라도 나만은 잘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을 불교라고 아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에 가서 촛불을 켜더라도 남이 켠 촛불을 꺼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촛불을 다시 꽂습니다.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죠? 그렇게 자기 신심이 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처님에게 '남들보다도 내 촛불 밝히는 그런 신심을 가졌으니까 알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당연히 신심도 아니고 불교도 아닙니다. 불교는 그야말로 '자미득도 선도타' 의 마음입니다. 나는 비록 제도를 못 얻었더라도 남들부터 제도해서, 그래서 남들이 전부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마음이 나오면 전부다 항복받겠다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부적을 받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부적을 만들어 주는 절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적을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남은 죽더라도 난 살아야 해.'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불교를 믿는 마음이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불교는 원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불교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왜곡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팔예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우님들은 모두 부처님 전에 108배도 하고, 염불정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백발예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백팔예참을 최고의 운동법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운동법을 배우려고 법당

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절을 많이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유익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화불량도 없어지고, 또 척추가 삐뚤어진 것도 바로 잡히고 하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자 일종의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내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누리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종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보살로서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의하면 지장보살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빠짐없이 성불을 하고 나면 그 때에야 비로소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죄업중생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다 구제해서 지옥을 완전히 떠나고,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시켜서 더 이상 중생이 남아 있지 않을 때 그때 맨 마지막으로 제가 성불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지장보살이십니다. 남들을 다 제도하느라고 바삐 돌아다니니까, 남들을 다 제도해서 더 이상 제도 받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니 그런 날은 영원히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 되는 날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장신앙을 많이 합니다만 지장신앙의 본뜻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미득도 선도타' 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불교신앙의 목적입니다. 나무

마왕의 은밀한 속삭임

여여 如如 법사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한마디로 이른다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정황에 대해서는 항마성도(降魔成道)라는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魔)를 항복받아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분명히 마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데, 어떤 마일까? 경전에서는 무척이나 희화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마는 명예의 군단입니다. 끝내는 승리하지만, 몰려오는 명예의 군단과의 전투로 싯다르타는 무척 지칩니다.

부처님일대기를 얼핏 살펴보아도 왕자시절의 싯다르타가 얼마나 똑똑하고 의지 강건하며, 재능 또한 뛰어났었는지를 넉넉히 짐작할 만합니다. 시쳇말로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본인은 겸손했을지 모르지만, 지난 삶의 밑변에는 "내가 누군데!"하는 명예욕이 잔뜩 똬리를 틀고 있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 촉망받고 인정받던 시절에 대한 기억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싯다르타에게 강력한 마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닥쳐온 게 뭐냐 하면 바로 돈입니다. 돈의 군단이 들이닥치더니 무지막지하게 돈을 뿌려댑니다. 그 좋은 돈도 한두 푼이지, 막 쏟아져보세요. 질식해 죽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박은 화살이 여러분을 향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맞아죽겠습니까? 몸체만한 황금덩어리가 머리위로 떨어지는데, 좋아서 입이 찢어질 새가 있을까요? 그래서 돈의 군단과의 싸움에 싯다르타는 녹초가 됩니다.

싯다르타의 아버지 정반왕은 엄청난 재산을 아들에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가면서 지낼 별장을 내주는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 인도를 통일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거리낌 없이 제공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돈을 소유한 적이 있던 싯다르타는,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거의 삶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마로 등장한 것입니다.

다음은 천녀(天女)들로 비롯되는 색욕(色慾)의 군단입니다. 이때도 도대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미녀들과의 힘든 전투를 간신히 이깁니다.

성적(性的)인 문제는 사실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입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옳다거나 그르거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본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져서 허우적거릴 이유도 없지만 굳이 기피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쾌락 지상주의나 반대로 금욕주의적인 추구 모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만족의 테두리를 결코 뛰어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본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본능을 기준으로 자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능은 버리고 말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욕입니다. 식욕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사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갖가지 마군(魔軍)들의 엄청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부처님이 아닌 구도자(求道者) 싯다르타는 기진맥진해서 거의 절망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구도자란 누구인가? 생명을 생명답게 살려고 자기를 던지며, 어떤 경우에도 고정된 삶에 머물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때 구도자는 마구니들과 이어지는 전투에 계속 매진하였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떤 시도를 하였을까요?" 답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이른바 포기(抛棄)입니다. 마와 싸우기를 포기하자 마침내 항마성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곧 결과적으로 승리한 것이지,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님을 뜻합니다. 마라고 하는 상대와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이긴 내가 있으므로 아직은 상대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싯다르타에게 명예와 돈과 색욕의 군단이 몰려왔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다고 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다고 해도 듣지 못할 현상입니다. 그때 싯다르타라는 구도자에게만 유일하게 벌어진 것이 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라고 하는 경계(境界)는 누가 부른 겁니까? 네. 100퍼센트 싯다르타입니다.

혹시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창문을 내지 않습니다. 바깥세상과 교통하지 말고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계가 없습니다. 각자 손목시계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가는 줄 몰라야지 주머니를 몽땅 털 때까지 게임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하게 거울이 없습니다. 고스톱이든 뭐든 장난이라도 도박에 빠진 사람의 얼굴은 기막힙니다. 영어에서 왜 포커페이스(무표정, poker face)라는 말이 나왔을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니, 생기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미라와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얼굴을 본다면 하도 끔찍해서 번쩍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하려니, 거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魔)라는 것은 엄청난 욕망의 세계 그 자체입니다.

충족하고 싶거나 충족되어야 할 욕망의 세계 말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향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미래(未來)입니다. 미래에 얼마만큼 무엇을 이루겠다는 결론이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사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매일 태워줄 게"하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옛사람들이 욕망의 허망함을 비웃으면서, "다음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까지 했을까? 미래에 대해 지껄이며 시간을 보내는 욕망의 세계는 확실히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도자 싯다르타도 왕자의 신분에 걸맞은 명예와 돈과 여자를 자연스레 자기의 소유(所有)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마군(魔軍)과의 싸움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마다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가지가지의 것들이 어떤 시간대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유는 과거(過去)에 속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욕망이든 소유든 간에 현재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는 데 따르는 결과물이거나 살아온 내력에 따른 흔적일 수는 있어도,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적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를 항복받았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뜻은 마와 싸우려는 마음을 항복(降伏) 받은 것입니다. 실로 누구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지,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침내는 이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기겠다는 그 마음을 항복받았을 때 따라오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처럼 "마군들이 완전히 항복하였다"는 멋진 증언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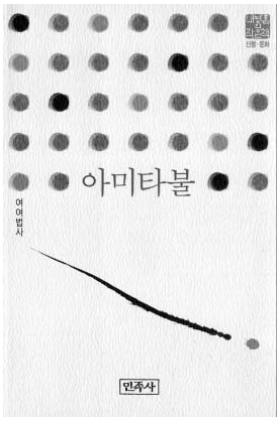
그때 마왕(魔王)이 나타나서는 부처님께 속삭입니다.

"구도자여, 그대가 그러다가 죽을라"하면서 짐짓 염려를 합니다. 부처님이 "내가 왜 죽느냐?"고 하시자, 마왕은 대단한 연설을 합니다.

"내가 수 억겁토록 수많은 구도자를 봤고, 수많은 구도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왜 그런가? 수많은 구도자들이 어느 정도하다가 성취가 있으면 거기서 그쳤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제 이보다 더 정진(精進)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정진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마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또한 어디서 유래하는 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정시킨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단한 수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육체적인 한계와 심리적인 포화상태를 측정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당에서 정진하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나만큼 정진하는 사람 있겠어?', '나만큼 노력하는 사람 있겠어?',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마왕의 은밀한 속삭임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여법사 법문 | 도서출판 민족사 펴냄 | 값 6,500원

'내 영혼의 작은 책'이라는 시리즈로 발간한 소책자의 첫 작품이다.
정토신앙과 아미타불 신앙에 대해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법문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깔끔한 편집에 소책자 형태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어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서점과 전국 주요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삶속에 피어나는 부처님 향기

- 자연에서 배웁니다 / 등관법사
- 딸의 원만한 결혼식을 치르며... / 명덕 이종희
- 가슴뛰는 삶을 살아래! / 인향 노여진
- 아쇼카 산악회 / 길상화 민영희
- 제주도 여행일지(3) / 인공 맹문향

자연에서 배웁니다

등관법사

고기밥을 주느라 연지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단지 물을 가둔 공간에 고기만 풀어놓았더니 녹조현상으로 물이 썩어 가는 겁니다. 고심 끝에 계곡물을 끌어다 물을 계속 공급하고 정화를 위해서 창포도 넣고 연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연지에 어느 날부터 여러 마리의 개구리가 들어와 있고 또 올해부터는 남생이 새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 위엔 소금쟁이가 한가로이 움직이며 미세한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새 작은 연지는 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먹이사슬과 자손을 번식하는 왕성한 활동도 보입니다.

계속 물이 나오고, 그 속에 고기가 있고 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식물이 있으니 그에 따라 인연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처음 연지를 가꿀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지요.

연기법이 저절로 몸에 와 닿습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 그에 따라 새로운 생명활동이 시작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만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A +B = C 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A +B = D or E, F 입니다. 우리들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생이한테 고기가 상처를 입고 급기야 죽어서 물위에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나비효과' 라는 영화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원인이 되는 과거 속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날의 사건을 바꾸어 놓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 속에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자신과 인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진 현실은 맘에 드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언제나 다른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은 부지런히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며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공의 선택은 처음부터 그녀를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되돌아가서 두 사람의 인생이 원만하게 펼쳐지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항상 같은 사람인 거 같지만, 그 때 그 때 달라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 결과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계산적으로 임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오늘 어떻게 하느냐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고기를 떠 낼 때 마음이야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 좋을 수 없지만, 자연에서 일어난 이치를 어찌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량의 잡초를 뽑을 때 생기는 미운 마음, 귀찮은 마음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절에 와서 여름이면 잡초와의 전쟁이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할 만큼 처음에는 화난 사람처럼 풀을 뽑았던 거 같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잡초 뽑는 시간을 낸다는 것도 빠듯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려니 힘도 들고 자연 잡초는 다만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풀 뽑는 일도 계속 해보니 또 다른 공부가 됩니다. 잡초를 번뇌에다

비유를 하지요. 조금만 방치하면 원래 무슨 용도였는지 알 수 없는 풀밭이 되는 거처럼 내 마음도 조금만 방심하면 번뇌가 무성해져서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는 판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잡초가 많이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어린 싹일 때 뽑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수년간의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키가 자란 풀은 잘 뽑히지도 않지만 뽑아낼 때 따라 올라오는 흙의 분량이 엄청나서 뽑아낸 자리가 움푹 파입니다. 진실이 아닌 번뇌가 시간이 갈수록 주인 노릇을 하고, 그 폐해가 커져도 알지 못하고 설령 알았더라도 수습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수습했다 하더라도 그 상처와 흔적은 깊어서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생겨날 때 얼른 알아채서 바로 바로 제거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뽑아내도 또 여지없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생명력!

연지 속의 생물도 그러하고,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그 생명력은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누가 돌보지 않고, 물 한 번 주지 않았어도 꿋꿋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본업에 충실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생명들처럼 처절하게 노력해 보았던가? 반성하게 됩니다. 자연 앞에 부끄럽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배워지는 생명의 진리와 가르침이 있어 오늘 듣는 법문이 더욱 소중하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딸의 원만한 결혼식을 치르며...

명덕 이종희

녹음 짙은 6월.
무더웠지만 화창한 날의 신부 모습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정 어른으로, 인연 따라 한 가정을 꾸릴 딸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예쁘고 건실하게 잘 자라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났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속 썩이지 않고 든든하게 맏이노릇 하던 딸이 뭐가 그리 좋은지 행복한 웃음 지으며 결혼식을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감동대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픈 마음이었지만, 나름대로 형편껏 소신껏 소홀함이 없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책임감이랄까? 진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30년 전, 혼수를 준비하던 저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젠 딸이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그때의 친정어머니는 어떠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지기도 했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5개월 남짓한 시간.

매주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위 대접하랴, 다른 일 보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낀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려진다."는 것입니다.
주위 인연진 분들이 여러모로 도와주려 하셨고, 또 혼수 준비하며 만나게 되는 상인들도 물건 파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라며 붉고 파란 보자기에 꼭꼭 싸서 덕담을 해주시는 데, 그 모습이 신랑 신부의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 속에 넣는 새는, 새 중에서 금슬 좋기로 유명한 원앙을 넣는 줄 알았는데 전통방식은 기러기를 넣어 보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기러기는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그 짝과 함께 지내고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켜, 평생 동안 변치 말고 함께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러기 한 쌍을 넣어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관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섯 가지 씨앗주머니(오곡주머니)에는 목화씨와 붉은 팥, 수수, 조, 고추씨를 넣었습니다. 목화씨는 자손과 가문의 번창을 뜻하고, 붉은 팥은 잡귀나 부정을 쫓고, 수수는 총명한 아이를 갖고, 조는 덕을 많이 쌓고, 고추씨는 자손을 많이 번창하라는 의미에서 넣는다고 하네요.
결혼 후에도 일이 술술 잘 풀리라는 의미에서 매듭을 짓지 않은 채 길게 늘어뜨린 명주실은, 대를 이으라는 의미가 있어 옷과 보석과 거울과 함께 가방에 넣는답니다. 이렇게 예부터 내려오는 풍속을 아이들과 배우고 해보고 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엊그제는 신혼여행 다녀온 딸과 사위 편에, 연감색 한지 바구니에 떡이며 고기며 술이며 가득 담아 이바지 음식을 보내고 나니, 할 일을 다 한 듯 말 그대로 시원섭섭합니다.

앞으로 한 가정의 어엿한 주부로서, 엄마와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친구처럼 서로 법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사님께서 늘,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려하지 말고 꼭 물려줄 것은 오직 종교(근본 가르침),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씀해주셨듯이, 딸과 사위에게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근본 가르침"이며,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아무 것도 걱정할 것 없이, 인연에 따라 나고 없어지는 일들에 연연하지 말고, 무한히 펼쳐질 인생에서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불교아카데미를 회향하며

인향 노여진

사랑하는 법우님들! 인향이여요.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淨土속에 노닌 지도 햇수로 3년째입니다.
처음 구도여행 갔을 때, 각 지역법당에서 오신 법우님들이 서로서로 손잡고 환한 웃음 지으며, 안부 물으시고 부둥켜안기도 하던 모습이 제게는 좀 낯설고, '얼마나 만났으면 저렇게 될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수련법회도 함께 하고, 수련법회 때 이 못난이를 "나무아미타불"로 감싸주시고 축원해주신 법우님들! 영주 부석사 구도여행! 지리산 구도여행! 저도 그렇게 환하게 웃음 지으며, 반가움 나누는 법우님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자고, 먹고, 걷고, 함께 머리 맞대고 다 같이 합동작품을 만들어 내며,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사수인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
우리 문사수인들이 머무는 곳곳이 바로 극락세계였습니다.
참 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온 곳!
참다운 부처님 법 만남이 이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해 준 곳!

세상에! 그런데도 슬그머니 또 밑바닥 마음에서 '근데 왜? 꼭 나무아미타불이데? 왜? 다른 진언도 있는데! 왜? 꼭 나무아미타불이여야 한데?' 그니까!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혹시 이 법보다 더 큰 것, 더 센 가피력은?' 하는 마음이 쏘옥 올라오는 겁니다.

그토록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을 읊조리며, 노구의 몸이시지만 법회 때면, 어디서 힘이 솟아 나오시는지 마이크가 부서질 정도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나무! 나무! 나무!"하시는 사자후를 들으면서도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음 법우님들 앞에 내놓습니다.

불교 아카데미!
개강을 앞두고 제 나름대로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다시는, 썩어빠진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드디어 2011년 3월19일 토요일!
회주님이신 한탑 큰스님의 "우리생명은 불생불멸이다." 라는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명성법사님의 "불교 아카데미는 낯선 곳에서 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낡은 가치를 버리고 부처님과 만나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불교아카데미 첫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 부처님 생애, 진실한 예경, 육법공양, 십이연기, 한국불교건축, 불교사원 그 가람의 배치, 팔정도, 삼법인, 삼보, 대승불교운동의 의의, 현대불교의 전망과 법회운동, 염불정진습의 ~~등등을 한탑 큰스님, 여여 법사님, 명성 법사님, 정신 법사님, 등관 법사님, 범활 법사님을 모시고 공부했습니다.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며, '왜? 꼭 나무아미타불 이어야 할까?' 에서 '아!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나의 참생명,부처님생명"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받아들인 척! 했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차츰 "나무아미타불"이 되어 감을 느끼고 강의를 들으며, "오직 나무아미타불" 일뿐! 견고한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토요일이 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아카데미 1기생 법우님들께 문자 띄우는 기쁨. 1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띄운 문자. 詩같은 연애편지!

법우님들께서 돌아가며 준비해 오신 간식 또한 가슴 뛰게 만들었지요.

2011년 6월18일 토요일. 벌써 불교 아카데미 종강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월산법우님과 인향이 개근상을 받는다 하잖아요. 더군다나 상품까지!!

가슴이 뛰네~ 어찌까! 하필 종강날 딸애 학교에서 숲 체험 행사가 있는데, 엄마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여요. 허지만, 절대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일!

18일 토요일 종강날 아침. 아침 7시40분 학교도착. 지리산 10시 도착. 지리산 둘레길(3코스) 11km 걷기 시작. 교장, 교감선생님도 눈에 안보여~ 딸애 손잡고, 이쁜 다리야 날 살려라~하고 막 걸었어.

교장선생님이 "참 잘 걸으시요이~ 막걸리 한잔 하시요~. 아! 예 벌컥벌컥 두 잔을 마셨더니 눈알이 빙 하면서 걸음이 안 걸어져버려. 오메 이러면 안 된디! 머릿속에 개근상과 상품이 빙빙 돌아가~

광주도착 4시. 뛰는 가슴 잠재우지 못하고, 계속 뛰고 있고, 배낭 집에 던지고

불교아카데미 가방 집어 들고 120을 밟고 정토사 도착 4시30분. 2교시 시작 준비 중! 휴~ 그래 난 개근이야~아!! 이렇게 불교아카데미 시작부터 뛰었던 가슴, 끝나는 날까지 뛰었습니다.
종강날! 큰 스님, 명성법사님, 등관법사님, 범활법사님, 1기 법우님들 모시고 "맛있는 저녁밥상"으로 불교아카데미 종강을 맛나게 끝냈습니다.

2011년 6월19일 일요일 수료식.
한 분 한 분 수료장을 받은 1기 법우님들!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의 더욱 밝은 광명에 깃들음이지 않았을까요?

불교 아카데미! 참 나를 찾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아들 얼굴만 보면, 사랑이 넘치다 못해 열이 뻗쳐오르는 삶이 아닌, 가슴 뛰는 삶!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뛴다면 세 가지 좋은 일이 된다.
첫째,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길,
둘째, 당신이 그 일을 한다면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그 일을 하면 당신의 삶이 매우 풍요로워진다는 것.

사랑하는 법우님들!
부처님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열정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뛰는 인향! 가슴 뛰는 삶을 살라요!
오직 "나무"일뿐!! 나무

*추신: 법우님들 답 기다릴꼐!!

아쇼카 산악회

길상화 민영희

6월은 도봉산 산행이다. 아침 6시 50분에 집을 나섰다. 8시에 아쇼카산악회 대장 성광법우를 부천역에서 만나 동행하기로 했다. 등반 대장답게 정이 넘치고 힘찬 발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웃는다. 뒤미처 대장은 나의 무거운 도시락을 자신의 배낭에 넣었다. '꽤 무거울 텐데' 그러나 대장은 가볍게 둘러맨다. 매번 고맙다.

수유역에 내려 어두운 지하철 역사를 벗어나니 유난히 6월의 태양이 빛났다. 수유리 버스종점에 도착하여 십여 명의 법우님들과 반가운 만남을 갖는다.

오늘은 조촐하게 요만한 인원. "오늘 산행은 오순도순 내실 있겠네"하고 누군가 한마디 한다. 종점 주변엔 등산객들로 분주했다. 대개는 도선사 쪽으로 들머리를 잡고 가는데, 우리는 종점에서 큰길로 다시 내려와 산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 느긋이 걸었다.

이름 모를 산새가 푸드득 날고 까마귀가 멀리서 까욱– 까욱–. 짙은 숲 냄새로 가슴을 정화시키며 오르막이 천천히 이어지는 포장도로를 지난다. 사찰이 나오고 사찰 뒤로 등산로의 입구가 되는 돌계단을 돌아갈 쯤 낭랑한 스님의 독경소리가 청량한 목탁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행진곡마냥 온 산에 울려 퍼진다.

염불강에 합류된 나는 둥실둥실 산으로 밀리고 이끌려 절로절로 숲바람이 되어 즐겁게 산에 밀착된다.

점점 가파르다싶은 길목에 거북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듯한 '거북선바위' 가 산 아래를 굽어보며 인간 바다를 향한 모습에 눈을 실어 올라타 본다.

내가 다녀본 소위 명산이라 일컫는 산은 산객의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 발걸음이 천근이다 싶으면 돌연 내리막이 나타난다든지 경관이 탁 트이고, 거북선바위같이 도저히 그냥 지나치면 무슨 괴이한 일이 있을 것만 같게 하여 산객으로 하여금 발길을 멈추고 지팡이 내려놓고 풍광을 둘러보며 전설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추억의 담소를, 나누며 한 숨 돌리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아쇼카산악회' 에 깊은 애정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있다.

회원이면 남녀가릴 것 없이 언제나 한두 분은 내 뒤를 천천히 따라와 준다는 것이다. 때마다 그렇듯 오늘은 연덕법우가 내 뒤를 염불처럼 따라오며 나를 밀어올리고 수호하는데, 마치 노인의 인내심을 미리 연습하듯 풀대를 꺾어 쥐고 이리저리 휘두르며 콧노래 흥겹게 따라오니 도봉산 정상은 오늘도 극락세계일 것이다.

등반의 필수 조건 중엔 등반대장을 들 것이다. '아쇼카산악회' 이광식 대장은 일찍이 백운대 절벽등반을 수료했음은 물론 동남아 곳곳의 명산을 두루 등정한 베테랑이다. 이쯤은 일반산악회도 갖춘 목록일 수 있다. 그런데 아쇼카대장 특징은 어떤 경우라도 등반의 규칙을 꼭 지킨다. 미리 등반 코스와 계절 따라 정해진 산행코스의 산객 수와 문사수의 산행목적이 부합되는가를 파악한다. 더러는 고되고 약간은 즐겁게 하여 넉넉하고 품위 있는 산행을 이끌어내는 요령을 터득한 불자라는 것이다.

또한 산행 시 맨 앞에 서서 산을 오르지만 대원들을 구석구석 살피면서도 기울지 않고 요란스럽지 않으며 모든 수고를 회원들에게 넘기되 넘기는 것 같지 않게 하는 리더십을 갖췄다.

나는 아쇼카 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산행에 참가하기를 어느덧 일 년 남짓 됐다. 장애인들이 히말라야산을 산악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고지3000m의 산을 올랐을 때 대원들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마도 등반성공보다 도와준 대원들에게 울음으로 감사했으리라!

이쯤에서 나는 '문사수 아쇼카산악회'를 정리한다.

첫째 아쇼카 산행은 나의 기도처다. 이 뜻이 없으면 아무리 대원들의 도움으로 산을 오르지만 내 형편상 기도가 아니면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어떤 이유를 대고서라도 산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아쇼카 대원들은 기도 도반이다.

셋째, 진정한 참생명의 불자가 도반이니 나의 기도는 이미 성취한 것이다.

누구나 극락에 들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심신의 수련을 쌓고 있다. 그런데 나에겐 아쇼카산악회 도반들이 곁에 있어 건강도 챙기고 기도도 하고 인내심도 키우게 되었다. 유명산사의 기도처가 이만하겠는가! 모든 남녀 도반들은 매번 산행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너무 힘들어' '다음엔 안와야지' 이런 와중에도 다리를 받쳐주고 지팡이의 키를 조절해주고 손을 잡아주며 배려해 준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 여울에 합류하면 절로 동화되어 흐르게 하는 문사수의 아쇼카 산행!

'감사합니다' 저만치 어느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며 웃고 있을 도반, 부처생명을 향해 합장하고 절한다.

산행을 마친 것은 도선사 청담스님의 기념관이 되었다. 이제부터 인간의 강에 흐르게 된다. 멀리서 막걸리 익는 냄새가 했더니 하산객들의 취기가 도로를 점령하는 흔들림이었다.

우리도 잠시 흔들리다 가기로 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길상화 민영희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시인협회 회원, 한국불교문화상 문학부문 대상 수상등 다수
시집 : 악령의 절정, 거미의 집, 목어울음의 색깔, 수필집 : 딸에게 보내는 편지

제주도 여행일지(3)

인공 맹문향(초등 3학년)

세계 자동차 박물관 –2011년 2월 27일 일요일

자동차 박물관에 갔다 왔다. 처음에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었다. ㅎㅎㅎ 자동차의 발전 모습을 한 번에 보여 주었다. 또 지용이는 차 2개를 샀다. 사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다. 사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려. 거기에는 체험장도 있었다.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비가 올까봐 걱정이 돼서 타지 않았다. 곰인형도 차를 타고 있었다. 실은 나도 차를 사고 싶었다. 어떤 차는 십몇 만원 하는 것도 있었다.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차라 비매품이었다. 동생은 헤벌레~였겠다. 나도 재미있긴 있었다.

초코릿 박물관 –2011년 2월 27일 일요일

초코릿 박물관에 갔다. 그런데 초코릿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었다. 또 초코릿을 만드는 걸 진짜로 보았다. 그리고 볼 건 별로 없었다. 그래도 입구 앞에 이쁜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다. 또 진짜 초코릿을 맛보고 구입했다. 초코릿 공예는 신기했다. 에펠탑도 있고, 진짜 이쁜 소녀도 있었다. 그러고 초코릿의 카카오 성분이 보약이란 말을 오늘 들

었다. 초코릿은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조금만 먹어야 된다. 초콜릿은 맛있어서 당긴다. 너무 재미있다.

협재 해수욕장–
2011년 2월 27일 일요일

협재 해수욕장에 가서 발을 담궜다. 그런데 너무 물을 많이 튀겨서 옷을 갈아입어야 될 지경이다. 그래서 나는 차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런데 너무 축축해 가지고 4~5분 있다가 갈아입었다. 원래 해수욕장엔 여름에 가는데 겨울에 가서 넘 추웠다. 하긴.... 여름보다는 낫다. 그런데 옷에 모래가 묻고 장난이 아니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여름에 가면되지. 거기는 여름에 놀러가는 관광지로도 좋겠다. 협재 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망을 쳐서 모래 날림을 방지한다. 재미있다.

※ 추신 : 초코릿 박물관에서 맛있는 초코릿을 먹으며 인공법우님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미타의 아이들 법회날, 불단에 정성스럽게 초코릿 공양을 올리고 법우들과 나눠먹으며 행복해하던 인공법우님의 예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호로 인공법우님의 제주도 여행기를 마칩니다. 할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떠난 여행에서 인공법우님은 본인이 경험한 모든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여행기를 적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부처님의 선물임을 느꼈던 법우님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여행기를 편집실로 보내주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회향'할 줄 아는 인공법우님을 이 자리를 빌어 찬탄드립니다~! 나무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법문_ **명성법사** | 요약_ **정성 박용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처님생명으로 대접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업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악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업(淨業)을 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맑힌다는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측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세요.
그로부터 너와 화해하고, 사회와 화해하고
국가와 화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에게 반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목이 생긴다면
따지지 말고 얼른 참회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전생의 업장이
이로부터 닦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 문사수법회 홈페이지 법문_ 여시아문에서

안온하고 안온한 길

성국 민병직

법회에서 전해들은 법문입니다.

신부는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신자였고 신랑은 불교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종교문제로 결혼식 장소부터 티격태격하였지만 주례만큼은 신랑이 주도권을 쥐기도 했습니다.

"법사님, 주례 말씀 중에 미신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신부 집을 가면 자꾸 불교가 미신이니 개종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날, 깜짝 놀랐습니다. 하객 수가 많은 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그럴싸한 신사들이 식장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지요.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랑은 불자입니다. 불자란 절대 자유인을 일컫습니다. 신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대자유인입니다. 불교를 미신으로 폄하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간에 있는지 신랑은 요즘 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네요.

미신이 무엇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미

신이다' 불교는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종교이지 밖에서 구하는 구걸의 종교가 아니다. 나를 떠나 밖에서 구하는 행위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몽땅 미신입니다."

그 후 미신이란 말은 쑥 들어갔고 신부는 청년법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신부의 오빠가 목사인 관계로 하객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성직자 내지는 신학대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 민병직, 산사에서 마음을 보다

"밖에서 구하는 것은 몽땅 미신이다"

종교의 본질을 확연히 드러낸 법문. 신랑은 이 법문 앞에 하객들이 일제히 침묵했고 뒤에서 "저분이 누구시지? 와–."하더라는 후문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왜 저리 놀랐을까?

주례를 섰던 법사님에게도 놀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위대성에 놀란 것입니다.

불교를 만난다는 것. 이는 정녕 삶의 당위입니다. 불가에서는 전생에 선업이 없으면 불교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부터 부지런히 불자로 만들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폐인으로 만들고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전 재산을 바치고, 자신까지 피 멍드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사찰이 무너져라 기도하고 불교가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사악한 마음에 은총을 내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신이 있을까요?

사찰에 들어가 사찰이 무너지라고 "사찰땅밟기"기도를 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을 때 저의 지인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야훼신이라면 구원은커녕 천벌을 내리겠네."

"천벌을 내리겠네."

정녕 이러합니다.

야훼신이 정말 있다면 민초들처럼 그리 우둔한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위대한 지성들은 부처님과 같이 비이성적인 절대신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지성 토인비Toynbee도 이렇게 실토합니다.

전지전능한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 "궁극적인 정신적인 존재"는 비록 그것이 존재한다 쳐도 개개의 생물이나 마찬가지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이것은 사악한 존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는 우주를 창조 내지는 유지하거나 적어도 묵인하는 존재일테니까.

– 토인비, 시사영어연구, 전지전능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사악한 존재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도 미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 쭌다에게 말씀하셨다.

쭌다야, 저절로 범천(梵天 · 브라만교의 창조신)이 있게 되었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다. 저절로 생겼다는 것 역시 맞지 않는다. 범천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범

천이 만든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서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떠들고 있는 것뿐이다. 천신이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범천이 세상을 낳은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은 허망한 것이다.

– 증일아함경 선악품

만약 창조자가 전지전능하였다면 어찌하여 그의 은총이 세상 만물에 고루 펴지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그의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던져졌는가? 어찌하여 피조물 모두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가? 어찌하여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어리석음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진실과 정의가 패배하는가?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죽여야 할 자가 왜 죽여지지 않는가? 그러므로 창조신의 권능을 말하는 성서聖書는 모두가 거짓말이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소리 역시 명백한 기만이다.

– Bhuridatta Jataka

미신이 이런 것이었다니. 창조자를 믿은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종교의 실상을 봅니다.

아이를 단속할 일입니다. 미신을 믿지 않도록, 외도의 무리에 끼이지 않도록 할 일입니다. 차라리 종교를 갖지 않을지언정 미신을 신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 삶의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물결이 고요해야 금덩어리가 보이지 거세게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는 금덩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평화와 안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크리스트교의 신은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다. 크리스트교는 신의 이름으로 인생과 자연 그리고 살려지는 의지와 같은 소중한 것들을 부정한다. 크리스트교의 모든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거짓말이다. 반면 불교는 인간을 평화롭고 밝은 세계로 인도하며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 니체Nietzsche, 안티크리스트

니체의 말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밝아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합니다. 마음이 안온하지 못하고 파랑이 일면 정신과 육체에 병이 들고 맙니다. 마음이 병들면 아이를 올바른 길로 향도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안정, 평화, 고요, 그리로 지혜를 안겨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의 귀의는 정녕 안온하고 안온한 길입니다. 나무

문사수법회 중앙법당 개원 17 주년 기념법회

기념법회에 초대합니다

1988년!
국내외적으로 시대업의 광풍이 몰아치던 해,
초전법륜의 정신을 잇는 문사수 경전공부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염불하여 성불한다는 신앙으로
이 시대와 마주하였습니다.

1994년!
경전공부모임은 법회운동의 기치를 입고 문사수법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름에 걸맞도록 지혜는 밝히고, 부처님 말씀은 전하며
법회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리로 피어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찬탄하며 개원 17주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일 시 2011년 7월 1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문사수법회 중앙법당

프로그램

- **오전 10시 30분**
  기념법회 봉행
- **오후 3시**
  밝은마음합창단 창립1주년 기념 '작은음악회'
  (장소 : Empty Space, 원당역 근처 구 법당)
- **오후 5시**
  뒷풀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9-1 무원빌딩 8층 TEL. (031)966-3581~2 FAX. (031)966-3584
* 주차장 안내 : 법당건물 뒤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 경의선 행신역 앞 무원마을 6단지 정문 앞

2011
문/사/수/성/인/
여/름/수/련/법/회

문사수여름수련법회는
일상의 번잡스러움으로부터 일시적인 일탈을 제공하는 수련은 아닙니다.
연꽃이 더러운 연못을 마다하지 않듯이,
내 삶의 현장이 수련도량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져 일상이 무료하고 권태로우시다면
여름수련법회에 동참하시어 정진(精進)으로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또 마음만 있고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에 자책하고 계시다면
부처님 전에 거짓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부처님의 무한능력에 **귀의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 일시 : **8월 5일 ~7일 (2박3일)**
- 입재 : **8월 5일 오후 3시** • 회향 : **8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문사수법회 수련도량 정진원** • 동참금 : **8만원**
- 문의 : **각 지역법당**

2011
문/사/수/법/회
아/미/타/의/아/이/들
수/련/법/회

우리는 아미타의 아이들!
어우러지는 기쁨, 위하는 마음

- 일 시 : 2011년 7월 25일(월) ~7월 28일(목) 3박 4일
  〈신청마감 :7월 17일까지〉
- 장 소 : 문사수법회 정진원, 섬진강
- 대 상 : 초등학생
- 동참금 : 10만원(교통비 별도)
- 준비물 : 비옷, 운동화, 샌들, 세면도구, 필기구, 30Cm자, 커터칼, 목공용본드
- 문 의 : 각 지역법당

2011
문/사/수/청/소/년
Thank you 캠프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나'일 것만 같은 청소년시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잘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에너지가 넘치는 때입니다.

가족의 울타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면서 친구가 보이고,
친구와 어울리며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립니다.

밝은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히 즐기고,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 시험에서 벗어나,
방학과 함께 찾아온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이 시점에,
삶의 전환점을 찾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문사수법회 청소년 캠프를 권선합니다.

부처님과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과 힘이 생겨
몸과 마음에 꽃이 필 것입니다.
나무!

지켜봐! 느껴봐! 그리고 소리쳐!"
_대지의 숨결을 온 몸으로 느끼다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원리를 지켜보고,
진짜 나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마음껏 외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갖고 있는
슬기로운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1년 7월 25일(월) ~ 2011년 7월 28일(목)
- 장　　소 : 문사수법회 수련도량 정진원 및 섬진강
- 대　　상 : 중1 ~ 고3
- 프로그램 : – 일상의 특별함 | 예불, 경행, 울력, 공양, 세면, 취침
  –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메아리 | 대지성체험
  – 스스로의 재발견 | 자신의 감정을 알고 적절히 표현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돕는다.
- 준 비 물 : 보시금, 세면도구, 여벌 옷, 양말. 긴팔 옷, 모자. 운동화, 샌들 또는 슬리퍼 (개인간식, mp3, 화장품, 악세사리, 민소매, 짧은 반바지, 쪼리 등은 금합니다)
- 회　　비 : 10만원 (교통비 별도)
- 문　　의 : 각 지역법당

월간 法友 정기구독 및 후원안내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받고서도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오늘, 참생명의 법문을 듣고 밝아진 마음에는
오직 성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여
밝은 삶을 누리게 하는 월간 신앙지 '법우' 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져야 함을 믿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고,
삶에 절망하는 이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찾아가는 월간 법우는
1993년 1월에 창간되었습니다.
창간 이래 20여년간 올곧게 '신앙지' 로서의 면목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월간 '법우' 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법우' 는 힘찬 전법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밝은 소식을 전함에
게으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월간 '법우' 를 받아보시는 분의 삶이
부처님 법 가운데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신청 및 문의

언제나 열려있는 월간법우 편집실

- 전 화 : (031)966-3581~2
- 팩 스 : (031)966-3584
- 이 메 일 : msspub@munsasu.org
- 문 자 : 010-2387-6305
- 우 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9-1 무원빌딩 8층 문사수법회

◉ 정기구독료 / 년 3만원

◉ 구독료 및 후원보시 전용계좌

국민 : 161601-04-002227 (사)문사수불교문화원

농협 : 1103-01-035354 (사)문사수불교문화원

◉ 후원보시는 CMS로 편리하게~

정기구독료 이외에 추가로 보시해주시는 후원보시금은 법우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보시하는 데 쓰여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법우지를 전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보시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CMS는 법우지 후원보시를 매월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입니다.
CMS 출금 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월간 법우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발송, 이메일발송, 팩스, 지역법당 보시함)

----------〈 절 취 선 〉----------

[CMS 출금 이체 동의서]

이 름

연 락 처 **이 메 일**

납입형태 ☒ 매월

출 금 일 □ 1일 □ 25일

보시금액 □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기타( )만원

출금은행 **출금계좌**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문사수법회에서 발행하는 '월간법우'에 CMS출금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법우지 후원보시를 납부하겠습니다.
- 보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월간法友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지이며,
불교신앙의 체득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앙지입니다.

❊ 구 독 · 후 원 (법 보 시) ❊

월간 법우는 현재 전국의 교도소와 불교병원, 불교단체 등에 매달 전체 발행부수의 약 50%를 전법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보시금(2011년 5월 21일 ~ 6월 20일까지)으로 월간 법우를 더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법보시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우님의 행복과 무한성취를 기원합니다.

• 정기구독 신청 |

김성윤 박선애 송지희 심용섭 유길신 정현숙 지은희

• 후 원(법보시) |

회주님	여여법사	정신법사	명성법사	등관법사	범정법사	범혜법사
범활법사	범열법사	중앙법당	대전법당	정진원	김동숙	김석순
김성윤	김소진	김종성	김추옥	김항식	나인선	미활
민영희	박부현	박안덕	박용희	불광한의원	심용섭	양선옥
유길신	유현성	이덕수	이상백	전철균	정경옥	조영숙
최동윤	최세헌	최향순	무기명 다수			

• 현재 법보시로 법우지를 받아보시는 곳 |

〈교도소〉 강릉교도소 · 경주교도소 · 공주교도소 · 광주교도소 · 군산교도소 · 김천소년교도소 · 대구교도소 · 대구구치소 · 대구구치소 · 대전교도소 · 대전논산구치지소 · 마산교도소 · 목포교도소 · 부산교도소 · 부산구치소 · 서울구치소 · 성동구치소 · 수원구치소 · 순천교도소 · 안동교도소 · 안양교도소 · 여주교도소 · 영등포구치소 · 울산구치소 · 원주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인천구치소 · 장흥교도소 · 전주교도소 · 제주교도소 · 진주교도소 · 천안(소)구치지소 · 천안개방교도소 · 천안소년교도소 · 청송 제1보호 감호소 · 청송 제2보호 감호소 · 청송교도소 · 청송제2교도소 · 청주교도소 · 청주여자교도소 · 춘천교도소 · 평택구치지소 · 홍성교도소 **〈단체〉** 건국대학교병원 법당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불교법당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법당 · 관음손 · 광주세무서 불자회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법당 · 담양택시 · 대흥사 ·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법당 · 동국대분당한방병원 법당 · 마하병원 법당 · 모노솜디자인 · 반야사 · 보문도원 · 불광한의원 · 세무사최재건사무소 · 예성불교 · 원광보은의집 · 일산복음병원 · 장남주옷 · 진선여고 · 한국은행 · 한국수력원자력 · 향림사 · 서울대학교병원 법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법당 · 삼성서울병원 법당 · 국립서울병원 경불회 · 국립의료원 법당 · 국립경찰병원 법당 · 서울보훈병원 법당 · 서울아산병원법당 · 건양대병원 법당 · 경북대병원 법당 · 영남대의료원 법당 · 부산대학교병원 법당 · 병원불자연합회 · 약사불자회 · 중앙대흑석동병원 법당 · 충주 용화사 · 한일병원 반야회 · 호국 상승사 · 호국 연승사 · 호국 비봉사 · 호국 도솔사 · 호국 홍익사 · 호국 득도사

문사수 지역법회 안내

불자(佛子)란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이라는 말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새롭게 생명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회가 열린다고 하면 불 속을 뚫고서라도 가라"는 간곡한 말씀을 '무량수경' 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부처님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앙법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9-1번지 무원빌딩 8층 031)966-3581,2

대중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경전학당 매주 화요일 오전반 10시30분 / 오후반 8시
아미타의아이들 법회(초등학생법회) 매월 2,4째주 토요일 오전 11시
청련회(靑蓮會)법회 (20대청년법회) 매월 1째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30분, 저녁6시

대전법당

대전 서구 둔산동 1207번지 3층 042)485-8111

대중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경전학당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예불정진 새벽 5시, 오전 10시30분

정진원 · 정토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리 492-1 061)381-0108

참생명법회(무량수전) 매월 1,3째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불교아카데미 강좌(관음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경전강좌(관음전) · 법담 : 짝수달 1째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독송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정진법회(대웅전)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7시
예불정진 새벽 4시, 오전 8시, 10시, 오후 6시

07 July

01	금	● [대전] 문사수 경전학당 '신심명으로 배우는 불교'
02	토	● [중앙] 청련회법회
03	일	● [중앙, 대전, 정진원] 대중법회
04	월	
05	화	● [중앙] 문사수 경전학당 '신심명으로 배우는 불교'
06	수	
07	목	
08	금	● [대전] 문사수 경전학당 '신심명으로 배우는 불교'
09	토	● [중앙] 아미타의 아이들 정기법회
10	**일**	● [중앙, 대전] 대중법회
11	월	
12	화	● [중앙] 문사수 경전학당 '신심명으로 배우는 불교'
13	수	
14	목	
15	금	● [대전] 문사수 경전학당 '신심명으로 배우는 불교'
16	토	● [정진원] 정진법회
17	**일**	● [중앙, 대전, 정진원] 대중법회 / **[중앙] 개원17주년 기념법회**
18	월	
19	화	● [중앙] 문사수 경전학당 '신심명으로 배우는 불교 회향'
20	수	
21	목	
22	금	● [대전] 문사수 경전학당 '신심명으로 배우는 불교 회향'
23	토	● [중앙] 아미타의 아이들 정기법회
24	**일**	● [중앙, 대전] 대중법회
25	월	
26	화	● 2011 문사수 아미타의 아이들 여름수련법회 / 청소년 Thank you 캠프
27	수	
28	목	
29	금	
30	토	
31	**일**	

* 상기일정은 법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사수법회 전법 네트워크

www.munsasu.org e-mail : msspub@munsasu.org

聞思修法會 중앙법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9-1 무원빌딩 8층
전화 (031)966-3581~2 팩스 (031)966-3584 / 대중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聞思修法會 대전법당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07번지 3층
전화 (042)485-8111 / 대중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聞思修法會 精進院 정토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리 492-1
전화 (061)381-0108 팩스 (061)381-5467 / 대중법회 :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